

01 교회소식

러시아, 성결의 복음을 전 세계에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 사랑의 안부를 전한 러시아 목회자들과 WCDN 의료진들 소식.

02 생명의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 시리즈

진리가 풍성히 임하고 진리의 자유함 속에 넉넉한 마음이 되면 상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관용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치료의 주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아낸 수지를 치료받은 과정을 통해 영혼이 잘됨 같이 법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았다는 권영숙 권사의 간증.

04 간증

하나님 사랑의 공간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는 물론 보이스 피싱 피해의 위기에서 지킴 받고,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980호 2022년 11월 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만민과 함께하는 기쁨, 성결 복음 전하는 축복에 감사”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 창립 30주년 맞아

지난 10월 23일 주일 낮 12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담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러시아 총회장들과 목회자들, 성도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를 가졌다.

특히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예수교연합성결회 부총회장)의 축하 영상이 상영돼 사랑과 위로가 담긴 메시지에 은혜받은 성도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이날 본교회 해외선교국 손영락 장로가 참석해 본교회를 사모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 성도들에게 본교회의 따뜻한 안부를 전하며 큰 기쁨이 되었다.

손 장로는 인사말과 함께 특송으로 영광 돌렸으며, ‘빛 가운데 행할 때 축복’(요일 1:5~7)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영상과 프로그램으로 30년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이 가운데 성도들이 한결 같이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담임목사 부부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해하는 모습에 장내는 은혜와 감동이 넘쳤다.

블라지미르 목사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까지 함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

사드리면서, “참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 기도로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러시아 만민교단은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이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는 2003년 ‘이재록 목사 초청 러시아 연합대성회’를 통해 만민의 사역에 크게 감명받아 본교회 선교사가 된 뒤 러시아 만민교단 총회장으로서 성결의 복음을 전하며 러시아 복음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손영락 장로는 러시아 목회자들과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의료진과도 만나 교제하였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본교회를 그리워하며 본교회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교회 집회나 세미나 등 여러 행사에 본교회에서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러시아 목회자와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에 전 세계 만민을 향한 구원의 섭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만민의 사역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축하 영상

특송하는 손영락 장로

축하 행사

기념 예배

사랑의 안부를 전하는 목회자들

러시아 WCDN 의료진

### 만민중앙교회 창립 40주년 행사 소식 게재



지난 10월 9일과 16일에 있었던 만민중앙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 소식이 「수도권일보」, 「시시뉴스」, 「시사매거진」, 「이투뉴스」, 「파이낸셜 데일리」 등 인터넷 언론과 「기독교신문」, 「크리스찬월드리뷰」 등 기독교계 언론에 게재되었다.

## 작정 다니엘 철야

11월 7일 [월]~27일 [주일]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인도

은사 집회, 성전 이전을 위하여  
[준비찬양 오후 8시 40분부터]



당회장 이재록 목사

# 관용의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야고보서 3:17~18)

바둑도 훈수하는 사람이 세 수를 더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두는 사람의 실력이 더 낫다고 해도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쉬운 것도 못 보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며 훈수하는 사람은 승패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그만큼 여유 있고 시야가 넓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해도 자기 유익을 구할 때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옳은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이 밝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관용의 열매로 얻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 1. '관용'의 영적 의미

사전을 보면 '관용'에 대해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함'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는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으므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지요. 이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는 사심이 없고 진리가 마음에 가득해야 합니다.

풍성한 진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 마음이 온전한 진리 자체였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고 쉬시지 못하면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지요. 영혼들을 위해 많은 수고와 눈물을 쏟으셨고, 결국은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분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 내어주심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해 천국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람의 행함을 통해서도 관용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축복받아 가축이 많아지자 제한된 땅에서 풀과 물을 얻어야 하니 종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람

은 다툼을 없애기 위해 따로 살기로 결단하고 조카 롯이 먼저 갈 곳을 택하면 자신이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말하지요(창 13:9). 그러자 롯은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을 선뜻 고릅니다. 롯이 받은 축복은 엄밀히 말하면 아브람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브람이 함께 하므로 롯의 소유도 더불어 늘어났지요. 더구나 롯은 아랫사람으로서 종들을 단속해서 삼촌이 마음 쓰지 않도록 처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지 않았고 땅도 먼저 선택했지요.

그런데도 아브람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내어주고 더 달라고 해도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과 티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리라는 약속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람은 넘치는 관용을 베풀 뿐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 이상의 선을 행했기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지켜야 똑똑하다고 하며,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하고 하나를 주면 그 이상을 받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며 참된 지혜입니다(행 20:35).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험기, 욕심 등이 있는 만큼 관대한 모습은 나올 수 없습니다. 당장 귀찮고 짜증 나는 것을 이기지 못하니 감정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관용의 영적 의미를 그냥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이라 하지 않고 '마음이 진리가 풍성하게 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 2. 관용의 지혜로 누리는 복

진리로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가 됩니다. 마음에 진리를 가득 채워 넉넉한 관용을 이루면 내 것을 나눠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남이 나보다 잘되는 것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해하지도 않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교회를 개척하여 넉넉하지 않을 때도 다른 개척교회들을 지원했습니다. 쓸 것을 아끼고 아껴서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 투자했어요. 속옷을 달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겹옷까지 주었고, 애매하게 오른뺨을 맞아도 화평을 쫓을 수 있다면 왼뺨까지 대주었습니다.

때로는 속이는 줄 알면서도 속아 주었지요. 대항할 힘이 없어서 맞은 것도 아니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내어준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간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일 안에 대형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고, 교회는 갈수록 더 풍성하고 넉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헛수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받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 때(고후 12:15) 디모데와 같이 그를 아버지로 여기며 사랑하는 일꾼들이 나왔고,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 줄 정도로 그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생겼습니다(갈 4:15). 진리를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상한 심령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 3. 관용에서 나오는 진리의 자유함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기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자유함'이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말씀했듯이 진리를 사랑하고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며,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알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안식일에는 영업하지 말라 하거나, 세상 오락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족쇄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 기

<p><b>만민뉴스</b> 등록 다-1840(1989. 7.12)</p> <p>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p> <p>홈페이지 <a href="http://www.manminnews.com">www.manminnews.com</a></p> <p>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p>	<p><b>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b></p> <table border="1"> <tr> <td>주일 대예배</td> <td>1부 10:00 AM 2부 11:30 AM</td> </tr> <tr> <td>주일 저녁예배</td> <td>3: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td> <td>9: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td> <td>11:00 PM</td> </tr> <tr> <td>금요철야예배</td> <td>11:00 PM</td> </tr> <tr> <td>수요예배</td> <td>7:00 PM</td> </tr> <tr> <td>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td> <td>8:30 PM</td> </tr> <tr> <td>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td> <td>9:00 PM</td> </tr> <tr> <td>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td> <td>4:00 PM</td> </tr> <tr> <td>다니엘 철야 기도회</td> <td>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td> </tr> <tr> <td>새벽예배</td> <td>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td> </tr> </table> <p>※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p>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뻘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일성수는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자신이 평안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진리를 알고 행하면,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고 늘 지킴 받으니 삶이 자유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미움을 버리면 마음이 가볍고 행복해집니다. 진리가 죄의 멍에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가 마음에 가득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맞춰 정죄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진리대로 살아갈 힘을 줍니다. '마음에 진리가 가득하다'는 것은 진리를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을 알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되지요(고전 8:1). 상대가 섬김 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면 금방 판단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 마음에 진리가 임한 사람은 상대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바라봐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지만, 상대의 허물과 비진리를 사랑으로 품고 덮어주지요. 예전에는 수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 4. 관용의 마음을 이룰 때 임하는 명철

진리가 풍성히 임하고 진리의 자유함 속에 넉넉한 마음이 되면, 범사에 밝은 길을 볼 수 있는 '명철'이 임합니다.

다. 이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의 자유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그들은 평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용서하라"하시면,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 정죄할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대답 없이 바닥에 무언가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답변을 재촉하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땅에 쓰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군중은 예수님께서서 쓰시는 것을 보면서 차마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쓰인 내용은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죄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결국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수치와 두려움 속에 떨다가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여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 자체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긍휼을 베푸는 관용의 마음도 있었기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하나님의 참뜻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나타내셨지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답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인이 불쌍하다고 해서 무조건 "살려 주라" 하셨다면, "율법을 거역하도록 가르친다"는 정죄를 받아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졌겠지요. 또한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만 죄인이 불쌍하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누룩처럼 퍼져 더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나타내실 수 있었습니다(딤후 2:4).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지혜는 예수님께서서 군중의 잘못을 직접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고 바닥에 쓰셨다는 데 있습니다. 모여든 사람을 대놓고 판단 정죄하여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을 정통으로 찌를 때에는 반발이 생긴다는 것을 아셨기에 다만 바닥에 쓰인 자신의 죄목들을 보고 스스로 깨달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관용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대가 악으로 행한다고 해도 판단, 정죄하지 않으며 그를 소중한 영혼으로 여기고 진리로 이끌어 주지요. 이러한 마음을 이룰 때 상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으로 부터 얻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한 행함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롬 15:1~2). 주 안에서 넉넉한 관용의 마음을 이루어 선한 향기를 발하며 하나님께서 자랑할만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획특집

## “방아쇠 수지를 통해 치료는 물론 영육 간에 축복받았어요”

2022년 4월,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려고 할 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매우 불편했지요.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 무의식중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굽어지거나 하면 손가락이 부러지는 듯 심한 통증을 느꼈고 제대로 펴지지 않아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왼손으로 잡아서 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이 신경 쓰여 조심하게 되었고, 점차 손가락은 구부러지지 않게 되었지요.



이러한 상태까지 되자 저는 지난 6월,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 병명은 '방아쇠 수지'였는데, 의사는 물리 치료를 권했고 만일 물리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물리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다가오는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해 치료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니엘 철야를 작성해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소원했지요. 그러자 기도 가운데 제 의와 틀로 인해 가족을 힘들게 한 것들이 떠올라 회개하였고, 이후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드디어 8월 1일, 만민하게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교육 후 은사 집회 때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 주셨지요.

저는 치료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며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구부러지지 않던 손가락이 60도 정도 굽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저는 9월에 있을 은사 집회를 준비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구부려 보았는데 통증이 전혀 없이 완전히 굽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질병 치료뿐 아니라 저 자신을 발견해 변화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제 의와 틀을 버리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니 가족도 변화되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받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참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권영숙 권사  
(60세, 2대대 8교구)



# “사랑의 공간 안에서 류머티즘 관절염을 치료받고 보이스 피싱 피해의 위기에서 지킴 받았어요”

한정화 집사 (55세, 3대대 18교구)

저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15시간 이상 편의점에 있기도 하고 오랜 시간 제대로 앉지 못하고 일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2년 전부터는 류머티즘 관절염까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온종일 통증과 부기가 계속되었으며 관절이 뒤틀려 변형이 왔지요. 저는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가게 되었고 처방해 준 약을 먹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아 매일 온몸이 붓는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 만민하게수련회'가 열린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사모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니 재정 형편상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떠올라 회비를 찬조하였고, 강단 헌화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등 교회에 힘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심고 행하고자 하였지요.

2022년 8월 1일 만민하게수련회 첫날, 사모함으로 준비한 만큼 도착 예배 때부터 은혜가 임했고 교육 후 은사 집회 때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고 행복했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은 후에는 류머티즘 관절염의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지요. 8월 21일, '안산 지성전 성령 충만

기도회'에 참석해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님의 기도를 받고 나서는 조금 남아 있던 통증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는 축복 속에 얼마 전에는 위기의 순간에 지킴 받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경, 휴대폰으로 정부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자는 1%이고, 10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고 하였지요.

때마침 돈이 필요했던 저는 좋은 조건이다 싶어서 문자로 보내온 은행 번호로 전화하였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여 30분 후 통화하니 대출 여부에 관한 신용 조사가 필요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따라 2개의 앱을 설치하였지요. 그리고 1개의 앱만 더 설치하면 대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대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전화할 테니 그 소리를 끄라고 하였지요. 오후 5시 50분경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당회장의 환자기도 소리가 또다



시 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후 6시가 은행 마감 시간이니 월요일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이 상황을 지인에게 말했더니 보이스 피싱 같다고 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112에 신고하였고, 곧바로 2명의 경찰이 와서 제 말을 듣고는 “휴대폰에 2개의 앱을 설치하고 마지막 1개의 앱을 설치하면 7억 원까지 돈이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하늘이 당신을 도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온전한 심일조를 못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 지난 9월부터 온전한 심일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며 지켜 주시고 치료와 응답,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코로나백신 접종 후유증을 치료받아 지팡이 없이도 잘 걷습니다”

마리아 벨리스 성도 (63세, 콜롬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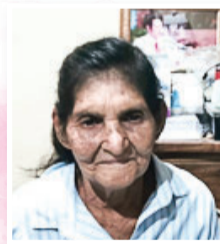


2022년 2월, 저는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후 관절과 근육 통증으로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만민교회 유튜브 채널로 만민중앙교회 은사 집회가 개최될 때마다 참석해 치료받고자 했고, 예배 욕기 강해 말씀을 통해 제약을 발견해 회개하는 만큼 병세도 호전됐지요.

그러던 중 9월 은사 집회를 앞두고 만민중앙교회 성령 충만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그때부터 남아 있던 통증이 사라져 지팡이 없이도 잘 걸을 뿐 아니라 잠도 잘 자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체험을 통해 저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 “관절염과 목 통증, 변비를 치료받았습니다”

후아나 에르난데스 성도 (80세, 온두라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 생겼습니다. 목 통증으로 인해 머리를 움직이기 쉽지 않았고, 신장 질환으로 인해 요통과 관절염이 있었지요. 또한 만성 두통과 청력 저하, 변비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2년 9월 30일, 콜롬비아 만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민중앙교회 은사 집회에 참석해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에는 모든 통증이 사라져 아무 문제 없이 주먹을 쥐고 펼 수 있었고, 목도 잘 움직일 수 있었지요. 변비도 치료돼 며칠 동안 못 가던 화장실도 큰 어려움 없이 잘 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여방동1099-2 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천서로 57 광명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향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9 향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옥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